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재한



독일이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를 번역한 시대정신은 한 시대의 사회에 공유되고 있는 정신으로 이해된다.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 시대정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현 시국을 전망하거나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듯하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시대정신의 내용은 사회통합이다.

정치적 분열의 역사는 오래된다. 의회민주주의의 태동기에도 당쟁은 있었다. 최초의 근대정당으로 불리는 영국의 토리당과 휘그당 간의 싸움은 걸리버여행기에서도 풍자될 정도로 심각하였다. 비슷한 시기, 대륙의 끝 조선에서도 봉당정치는 있었다. 서인과 동인 간의 대립, 그리고 동인에서 갈린 남인과 북인 간의 대립, 그리고 서인에서 갈린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는 조선인에게 자율적 조정 능력이 없어 식민지배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일제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기도 했다.

오늘날 다른 민주국가들에 비해 정당 간 차이가 적다는 미국에서조차 민주당과

공화당간 차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동서고금을 털어 당파적 정쟁이 전혀 없는 정당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내부의 갈등은 외부와의 경쟁에서 패배

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적을 앞에 두고 분열되는 적전분열(敵前分裂)과 반대되는 현상은 오일동주(吳越同舟)이다. 서로 원수관계인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면 원수와 오른손처럼 서로 협력하여 풍랑을 극복한다는 오일동주는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적개심이 풍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약해야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국내 분열의 정도가 외국과의 갈등보다 더 클 때가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북한, 미국, 중국 등 남한 외부의 문제로 남남갈등이 전개되는 것은 내

부 경쟁세력에 대한 불신이 외부 세력에 대한 불신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내부 분열이 심각한 이유는 그 분열이 '패거리적'이기 때문이다. 패거리적 분열에서는 무엇을 지지하고 비판하느냐는 측면보다 누구를 옹호하고 비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언론매체의 청탁으로 원고를 기고하게 되면 글의 내용보다 기고 매체로 판단될 때가 많았다.

주장의 논리성보다 가담한 패거리가 더 중요한 세상이다. 물론 색깔이 뚜렷한 언론들은 원고를 청탁하고도 작성된 글 내

아진다. 그런 맥락에서 정치 불신과 분열은 민주주의의 필요악이다. 따라서 분열 자체를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과도한 불신과 분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도 한다. 따라서 합리적 분열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이치를 음과 양으로 설명하는 음양설에서 음과 양은 대립한다는 의미보다 상호보완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음양설은 순음 또는 순양으로 구성된 것을 좋게 보지 않는다. 분열은 합리적인 합의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극단적 입장보다 중도적 입장이 두터워야 한다.

중도 비중의 증대는 정치엘리트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다. 이면저전 왔다갔다하는 행태는 중도가 아니다. 그러한 행태는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어 단기적으로 정치적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오히려 사회통합에 부정적이다.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더라도 남의 소신도 인정하면 통합이 될 수 있다. 또 합의된 게임규칙을 지키는 것도 통합에 필수적이다. 통합을 정치 슬로건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실천해야 한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통합의 조건

음이 자신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다고 게재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언론과 SNS는 상대와의 소통보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성격이 강하다.

사회가 분열되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FTA와 같은 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협상과의 대적점에 있는 국내 경쟁과의 존재 때문에 외국이 더 양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부 분열이 외부와의 협상에 유리할 때도 있다.

민주주의, 특히 정당민주주의는 분열을 전제로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의회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낮

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은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국가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달이다.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충분한 지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피땀 흘려 조국을 지켜낸 참전자와 유가족들이 긍지를 갖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과 문화가 생활 속에 뿌리내릴 때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려는 마음과 행동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월이 가기 전, 주변에 있는 국가유공자를 찾아 안부를 묻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광주일보는 광주지방보훈청과 공동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사회 저명인사와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나라사랑 릴레이 칼럼'을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월 1회 연재하는 코너를 운영합니다.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독립과 호국, 민주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고귀한 가치이다. 이를 국민대화합으로 승화시켜 미래 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이고 범국민적인 에너지로 창출해 가야 한다. 또 과거 역사를 통해서 나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훈을 얻어 항상 깨어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도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꿈과 희망을 갖고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열심히 사는 모습은 아름답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룬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 질 것이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다. 어렵고 힘든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는 마음은 우리 사회가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동력이다. 정기적인 봉사 활동에서부터 재능기부 그리고 거스름돈 기부까지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될 때 밝고 건강한 사회가 앞당겨 질 것

호국보훈, 사랑과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라사랑 칼럼



윤봉근

현충일을 앞둔 지난 1일 광주보훈요양원을 찾았다. 6·25참전 후유증으로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르신들은 '바쁜 가운데에도 잊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했다. 당연한 도리에 오히려 환하게 웃으시며 고마움을 표하시는 모습에서 진즉 관심 갖지 못함에 죄송했다. 그래도 잠깐이나마 국가유공 어르신들의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매우 보람된 시간이였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 없이 짧은 기간에 큰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시민사회를 이루는 등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에 기여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경제·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열풍이 불고 있다.

모든 역사는 과거는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 지금의 평화와 번영도 결코 대가 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다. 오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을 물리친 순국 선열들과 6·25전쟁에서 산화한 호국장병 그리고 민주화에 몸 바친 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구국일념으로 몸바쳤던 순국선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라사랑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국제 열감들 사이에서 국가의 안위를 굳건히 지켜내고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의 길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한다.

먼저 어려서부터 올바른 민족관과 국가관

의료 칼럼



김준

과거 경추와 요추 디스크 등의 척추 질환은 보통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되어 왔다. 대개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디스크, 척추관절의 기능적 변화 및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골다공증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컴퓨터 사용, 학업 시간 증가 등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히 젊은이들의 운동량이 줄어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이나 인대 등이 약해지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부상 또한 젊은 층의 경우 교통 요통 환자가 늘어난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척추 질환 통증은 비껴갈 수 없는 질환이 됐다. 심지어 젊은 층은 운동과 물리요법 등 보존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존적 요법을 시행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고령의 환자들은 전신 마취 후 이뤄지는 수술에 대한 부담감과 젊은 환자층에서는 바쁜 일상 생활로 인해 지속적인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에 따라 물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빠른 일상 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는 비침습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수핵 감압술이다.

수핵 감압술은 고주파 열에너지를 이용해 병변 디스크 수핵의 압력을 낮추어서 돌출된 디스크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디스크 주

척추환자에 반가운 수핵감압술

변의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시술 부위를 국소마취하고 직경 1mm 두께의 가는 관을 척추 디스크에 삽입한 뒤, 관의 끝에서 방출되어 나오는 고주파 열에너지를 통해 원인이 되는 돌출된 디스크 병변 수핵 부분을 직접 쏘아 끊어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는 관에서 나오는 저온의 고주파는 빠르게 디스크 수핵의 분자를 분해하고 녹인 다음, 이 과정에서 생긴 디스크 내 빈 공간을 최적의 온도로 수축 및 응고시켜 튀어나온 디스크를 줄인다. 이렇게 하면 신경을 누르던 디스크 압력이 줄어들면서 허리와 다리 통증도 완화된다.

기존의 레이저를 이용한 감압술은 섭씨 200~300도의 높은 온도 탓에 주변 조직에 유착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지만, 이처럼 고주파 열에너지를 이용한 수핵 감압술은 정밀하게 디스크의 부분 절제가 가능하고 낮은 온도로 디스크 수핵을 응고 및 수축시키기 때문에 시술 성공률이 월등히 높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

나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독특한 중독성 때문이다.

내가 하루에 3잔씩 원두커피를 마신다면 한잔에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45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셈이다. 위가 민감한 사람일 경우 위가 쓰릴 수도 있는데 카페인에 민감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300mg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경과민에다가 눈부심도 나타나고, 또한 호흡곤란과 부정맥의 위험이 증가하고 역류성 식도염과 위궤양이 잘 생기며 심지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아야 한다.

그리고 카페인에 더 예민한 성장기 청소년은 몸무게 45kg 여학생을 기준으로 캔커피 2개만 마셔도 행동에 지장이 생기고 불안감까지 커진다고 하니 혹시라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마시는 커피를 호기심 삼아 먹어 보려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를 말라야 한다.

우리의 전통차 섭취는 점점 줄어들고, 커피 소비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도 건강을 생각해서 커피보다 몸에 이로운 다른 음료와 차를 마시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최유철·광주시 남구 앙림동

시설

오염총량제, 혁신도시 발목 잡아선 안돼

한전KPS의 광주·전남혁신도시 종합연수센터 건립사업이 '수질오염 총량제'에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다. 이 연수센터는 한전KPS 본사의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나주 다도섬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나주시가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에 따른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페널티를 받고 있어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연수센터는 영산강환경정호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았으나 부적정 관정을 받아 사업계획서가 반려됐다. 환경청은 나주시역이 수질오염 총량제에 묶여 제제를 받고 있어 연수센터 건립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부지를 모색하는 등 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나 혁신도시 내에는 여유 부지가 없어 건립 자체가 어렵게 됐다. 한전KPS는 '6월말까지 건 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대전으로 가겠다'는 뜻을 나주시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지난 2월 발표한 1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평가 결과, 이 지역에서는 광주와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6개 시·군이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담양·함평·화순 등은 오염 배출량을 줄여 제재가 풀렸으나 문제가 된 나주 등은 아직 벗어나지 못해 페널티를 받고 있다.

문제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다른 15개 기관들의 지역내 연수원 건립도 예상되고 있지만 나주시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기관들의 부대시설 건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국책사업에 대해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한을 정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등 한시규정을 뒤흔다라 국책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나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일을 거울삼아 오염 배출량 저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비료값 담합 부당이득 농민에 돌려줘야

광주·전남지역 6300여 명 등 전국 농민 2만7600여 명이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1인당 3만 원씩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비료 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 등의 비료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8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는 농민들의 집단 소송이 피해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자 의미 있는 대응이라는 판단이다. 이들 제조업체는 농협과 연연초조합의 비료 구매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 최고가의 99%로 낙찰받은 뒤 미리 짠 대로 물량을 나눠, 비싼 값에 판매해왔다. 농민들로선 비싼 만큼의 비료 값을 더 지출해 영농비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실지로, 지난 2010년 6월 담합없이 실시된 경쟁입찰 결과, 비료가격은 전

년도보다 21%, 1022억 원이 낮아졌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비료회사들이 그동안 담합으로 농민에게서 동진 금액은 무려 1조6천억 원에 달한다. 오죽했으면 농업계에서 낸 소송 가운데 사상 최대 인원인 2만7600여 명이 참여했는가.

더욱이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가 주인(주식 56% 소유)으로서 비료시장의 42.2%를 점유하고 있다. 농민의 농협이 그 오랜 기간 조합원을 수탈해왔다 하니 몸떨치는 물론이고, 범죄행위나 다름없었다.

지금 우리 농업은 FTA 체결과 영농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비료업체들이 담합행위라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업체들은 소송을 떠나 당사 부당이득을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그나마 도리다. 이마저 아니라면 경제범죄로 간주해 형사소송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박지는이 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은퇴를 선언했다. 국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33세로 아직 한창 필드를 누빌 나이지만 그녀는 "너무 지쳤다. 이젠 벗어나고 싶다"고 은퇴의 변을 밝혔다. 그녀는 골프 유학을 위해 12세때 부모 곁을 떠나 낮은 미국 땅에서 운동에 전념해 아마 최강에 올랐고, 2000년 LPGA에 데뷔 후 승승장구 했다.

하지만 그녀는 2005년 허리와 고관절 부상을 시달리다 두 차례 수술대에 올랐고 지난해 컨디션 조절한 후 올해 재기를 꿈꿨으나 7개 대회에서 5차례나 예선 탈락하며 끝내 선수 생활을 접었다.

한가지 일에만 매달리다 자신의 모든 걸 태워버려 더 이상 뭔가를 할 육체적, 정신적 의욕이 사라진 상태를 스포츠 심리학에서 번아웃(Burnout·소진)현상이라 한다.

그녀는 "친구 생일 파티에서 놀다 어쩔 수 없이 공 치러 갔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그녀는 오로지 골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시켰던 것이다. 비단

박지는 뿐만 아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현주소가 그녀의 현상과 다르지 않다.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 지는 한국 여자골프에서 선수 수명은 짧다. 20대 중반이면 노장이다. 어릴 때부터 오로지 운동만 해서 어느 정도 목표만 달성하면 의욕 상실과 함께 슬럼프를 겪고, 거기에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 박세리

는 부진에 시달릴 때 아버지에게 "왜 쉬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골프클리닉을 하던 타이거 우즈는 어린 선수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게 없다. 왜 왔느냐"며 반문했다. 어린 선수들이 하루에 몇시간씩 공을

치며 비슷한 스ვენ을 하고 획일화된 훈련으로 개성을 잃게 하는 선수 육성 시스템을 꼬집은 고언이었다.

더 이상 선수들에게 번아웃을 가르킬게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가치를 함께 지도해야만 일찍 지루는 꽃을 방지 할 수 있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번아웃 현상



카페인 많은 커피·음료 대신 몸에 좋은 우리차 마시자

출근길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근무중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 후 식당 주변에서 우리는 커피를 즐겨 마신다.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든 녹차나 각종 음료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일과를 마치고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커피나 기타 음료를 마시게 되는 이유는 카페인은 얼마나 될까. 그걸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은 또 얼마

나 될까.

콜라 한 캔에는 23mg, 커피우유에는 47mg, 그리고 녹차 아이스크림에는 무려 1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한다. 무심코 섭취한 카페인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 중독에 빠질 수 있는데 이게 몸에 좋은 거라면야 별문제 없지만 카페인은 인체에 좋은 부분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는 점이다. 물론 나쁜걸 알면서도 쉽게 끊기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촌매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